

『素問·脈要精微論』의 規矩衡權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¹

이혜연¹ · 강정수¹ *

Study on Compass, Carpenter's square, The Beam of Balance and the Weight of balance[規矩權衡] in 『Somun(素問)·Maekyojeongmiron(脈要精微論)』

Lee Hye-yeon¹ · Kang Jung-soo¹ *

¹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In the perspective of the correspondence of heaven and man[天人相應], people live through Gi of heaven and earth[天地之氣], and the human body which is a small universe[小宇宙] itself receives influence while sympathizing with the Gi and heaven[天氣]. So with unexpected incident of the Eum and Yang, four season[陰陽四時], ups and downs of warmth of cold and chilliness of warm[寒熱溫涼] differs, and the position of Gi of human[人氣] changes, regimen and application of acupuncture, and images[象] of the pulse changes.

In 『Maekyojeongmiron(脈要精微論)』, ups and downs of Eum and Yang changes by four season[四時], and correspondence of ups and downs of pulse law is explained with compass, carpenter's square, the beam of balance and the weight of balance[規矩權衡]. Compass[規] is a measure of instrument that can draw a circle, like regulating the measure and differing the center of the circle and diameter and drawing a circle, compass is a image of Gi of Yang[陽氣] that was staying deep inside the body in winter stretching out by big fault[太過不及] of year and energy[元氣] of human in spring. Carpenter's square[矩] is a instrument that draws direction, which is a image of Gi of Yang flourishing in summer and when it gets highly flourished, again the Gi of Eum[陰氣] comes alive and falls. The beam of balance[衡] is a scale, like a scale that tilts at once when one side is slightly heavy, the beam of balance is a image Gi of yang that is fully flourished in summer and about to descent again, which is just about to fall but not going down yet. The weight of balance[權] is a image of gi of yang which as descent to the bottom and staying in the deepest place. compass, carpenter's square, the beam of balance and the weight of balance is not a direct pulse image[脈象], but standard image of pulse of pulse corresponding to the Gi of human[人氣] that changes by four season, and the explanation includes the pulse image of four season like the taut, full, floating, deeply gather[弦鉤浮營] of 『Okgijinjangron(玉機眞藏論)』 or taut, full, skip, float, deep [弦鉤代毛石] of 『Pyeong-ingisangron(平人氣象論)』.

So with compass, carpenter's square, the beam of balance and the weight of balance, can judge is human correspond in Eum and Yang, four seasons, this is importantly used in examination of

pulse[診脈] with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d prognosis of illness.

Key Words : the correspondence of heaven and man(天人相應), Maekyojeongmiron(脈要精微論), compass, carpenter's square, the beam of balance and the weight of balance(規矩權衡)

I. 序論

東洋에서는 사람을 小宇宙라고 한다. 小宇宙란 人身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全宇宙의 일원으로서 이들과 전체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주도 인간과 같이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의학은 우주 운행 질서와 同行하는 삶을 누리려 하고 그 이상적인 인간상을 平人이라 한다¹⁾. 『素問·上古天真論』에 真人·至人·聖人·賢人の 네 인간 유형이 나오는데, 비록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天眞의 기운을 내장시켜 陰陽의 균형을 성취하였으며, 陰陽과 四時에 順應하고 그것을 삶과 신체 속에 體化하여 ‘平人之氣’ 혹은 ‘平人之象’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동일하다²⁾. 이러한 平人은 언제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으면서 역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³⁾.

五行의 變化가 자연에 드러나는 것이 四時라고 할 수 있으니, 五行의 變化는 四時로 표현되고, 天人相應에 입각하여 人氣도 四時の 움직임에 따라 변화한다⁴⁾.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春三月은 ‘發陳’이라 하고 夏三月은 ‘蕃秀’라 하고 秋三月은 ‘容平’이라 하고 冬三月은 ‘閉藏’이라 하여 春夏秋冬 四時の 개념을 설명하였고,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春

生夏長 秋收冬藏 是氣之常也 人亦應之”라 하여 春에는 生하고 夏에는 長하며 秋에는 收하고 冬에는 藏하는 법도가 天地之氣의 정상적인 활동이며 인간도 여기에 應하여 생명활동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⁵⁾.

한의학의 四診中 하나인 脈診은 동양사상의 핵심인 天人合一과 陰陽五行을 바탕으로 脈象 변화의 규율과 이치를 살피는 것이다. 즉 내외환경에 대한 인체반응이 脈象이며, 이러한 脈象 변화는 體內 상태를 반영한다⁶⁾. 『黃帝內經』에서는 春·夏·秋·冬에 應하는 脈象을 「玉機眞藏論」에서 ‘弦·鉤·浮·營’이라 하였고, 「平人氣象論」과 「宣明五氣」 등에서는 ‘弦·鉤·毛·石’이라 하였으며, 그 외의 여러 편에 걸쳐서 四時에 따라 변화하는 脈象을 설명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四時가 순행하는 동안 陰陽이 升降하는 것에 人氣가 應하여 나타나는 반응들이다. 이러한 四時の 脈象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四變之動에 脈이 더불어 上下하는 모습을 설명한 ‘規·矩·衡·權’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素問·脈要精微論」에 나오는 規矩權衡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고찰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天人相應

人體는 小宇宙로서 天氣와 交感하며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를 天人相應이라고 한다. 『黃帝內經』에서는 이에 대해 “人與天地相應”⁷⁾이라 하였는데, 이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omdkjs@dju.kr Tel: 042-280-2617
접수일(2009년 12월 19일), 수정일(2010년 1월 7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12일)

1) 김인락. 東洋醫學의 人間과 醫道.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7. 1(1). p.43.
2) 정효구. 한국현대사와 平人의 사상. 서울. 푸른사상사. 2007. pp.22-23.
3) 김인락. 東洋醫學의 人間과 醫道.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7. 1(1). p.43-44.
4) 최근조, 강정수. 時間에 따른 人氣의 盛衰에 관한 연구.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1. 10(1). p.16.

5) 이상범, 박영배, 강성길. 四時の 鍼刺法에 대한 文獻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75. 12(1). p.203.
6) 장용우, 임진석. 黃帝內經에 나타난 脈診法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8. 11(2). p.147.

는 자연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人體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人體 內에서 相應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⁸⁾. 『素問·寶命全形論』에 “天이 덮고 地가 실어서 萬物이 다 갖추어짐에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사람은 天地之氣로써 生하고 四時之法으로 成하기 때문이다. … 사람은 地에서 生하고 天에 命이 걸려 있기 때문에 天地와 氣를 合해야 命하기를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 중에 능히 四時에 應하는 者는 天地가 父母가 되고 萬物을 아는 者이니 天子라고 할 수 있다.”⁹⁾고 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天은 陽이 되고 地는 陰이 되고, 日은 陽이 되고 月은 陰이 되어 大·小月 360日은 1歲를 이루고, 사람은 또한 그에 應한다. … 陰陽이라는 것은 10으로 셀 수 있으면 100으로 미룰 수 있고, 1,000으로 셀 수 있으면 10,000으로 미룰 수 있으니, 10,000보다 큰 수를 이루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要는 하나이다. … 陽은 주는 것을 主하고 陰은 만드는 것을 主하므로 生은 春에 因하고 長은 夏에 因하고 收는 秋에 因하고 藏은 冬에 因하는데, 常을 잃으면 天地가 四塞한다. 陰陽의 變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한 數로 헤아릴 수 있다.”¹⁰⁾고 하여 數로 헤아리고 미루어 보는 陰陽은 四時에 因하며, 사람은 陰陽에 應하고 陰陽의 變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數로 헤아릴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사람의 陰陽 變化는 四時와 연관지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 “黃帝가 四時之氣를 듣고 싶다고 하였다. 岐伯이 말하기를 春에는 生하고 夏에는 長하고 秋에는 收하고 冬에는 藏한다. 이것이 氣의 常이니, 사람

이 또한 그에 應한다”¹¹⁾고 하였다. 이 내용들은 모두 陰陽의 변화가 자연에 드러나는 것이 四時이며, 天人相應하여 人氣도 四時の 움직임에 따라 변화함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內經에서는 우선 天人相應이라는 관점으로써, 사람은 天地에서 生하고, 天地陰陽의 變化로 四時에 따라 氣가 달라지는 것에 應하여 人身之氣도 달라짐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람의 氣의 변화는 天地之氣의 변화인 四時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四時的 변화에 대하여,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무릇 氣의 生과 그 化는 盛衰가 다르다. 寒暑溫涼은 盛衰之用이 그 四維에 있으므로, 陽의 動은 溫에서 始하여 暑에서 盛하고, 陰의 動은 清에서 始하여 寒에서 盛하니, 春夏秋冬이 각각 그 分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大要에서 ‘저 春의 暖이 夏의 暑가 되고, 저 秋의 忿이 冬의 怒가 되니, 四維를 삼가 살피고 살핀 것을 모두 歸하면, 그 終을 볼 수 있고 그 始도 알 수 있다.’고 함이 이를 말한 것이다.”¹²⁾고 하였고, 『素問·厥論』에서 “春夏에는 陽氣가 많고 陰氣가 적으며, 秋冬에는 陰氣가 盛하고 陽氣가 衰한다.”¹³⁾고 하여, 春夏秋冬에 따라 陰陽의 盛衰와 氣候의 寒熱溫涼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였다.

天氣가 四時에 따라 달라지듯이, 天應하는 존재인 사람 또한 四時的 變化에 따라 人氣의 所在가 달라지는데, 『靈樞·終始』에 “春에는 氣가 毛에 있고, 夏에는 氣가 皮膚에 있고, 秋에는 氣가 分肉에 있고, 冬에는 氣가 筋骨에 있다.”¹⁴⁾고 하였고, 『素問·四時刺逆從論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9.

8) 최근조, 강정수. 時間에 따른 人氣의 盛衰에 관한 연구.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1. 10(1). p.13.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7.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 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人能應四時者 天地爲之父母 知萬物者 謂之天子”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 “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 大小月三百六十日成一歲 人亦應之 …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萬之大不可勝數 然其要一也 … 陽子之正 陰爲之主 故生因春 長因夏 收因秋 藏因冬 失常則天地四塞 陰陽之變 其在人者 亦數之可數”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6. “黃帝曰 願聞四時之氣 岐伯曰 春生 夏長 秋收 冬藏 是氣之常也 人亦應之”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3. “夫氣之生與其化 衰盛異也 寒暑溫涼 盛衰之用 其在四維 故陽之動 始於溫 盛於暑 陰之動 始於清 盛於寒 春夏秋冬 各差其分 故大要曰 彼春之暖 爲夏之暑 彼暑之忿 爲冬之怒 謹按四維 斥候皆歸 其終可見 其始可知 此之謂也”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9. “春夏則陽氣多而陰氣少 秋冬則陰氣盛而陽氣衰”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3. “春氣在毛 夏氣在皮膚 秋氣在分肉 冬氣在筋骨”

』에서는 “春에는 氣가 經脈에 있고, 夏에는 氣가 孫絡에 있고, 長夏에는 氣가 肌肉에 있고, 秋에는 氣가 皮膚에 있고, 冬에는 氣가 骨髓中에 있다. 黃帝가 말하기를, 그 이유를 듣길 원한다. 岐伯이 말하기를, 春에는 天氣가 始開하고 地氣가 始泄하여 얼음이 풀리고 水가 行하고 經이 通하므로 人氣는 脈에 있다. 夏에는 經이 滿하고 氣가 溢하여 孫絡에 入하여 血을 받으니 皮膚가 充實해진다. 長夏에는 經絡이 모두 盛하여 內로 肌中을 溢한다. 秋에는 天氣가 始收하고 腠理가 閉塞하고 皮膚가 引急하다. 冬에는 蓋藏하여 血氣는 中에 있고 內로 骨髓에 붙어서 五藏에 通한다.”¹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張介賓은 “春時에는 天地의 氣가 動하고 水泉이 流行하므로 人氣도 또한 經脈에 있다. 夏時에는 氣가 盛하므로 넘쳐 孫絡에 入하여 皮膚를 充하게 하니, 따라서 人氣는 孫絡에 있다. 6월은 建未이다. 이는 長夏의 土氣가 勝한 때로서 經絡이 모두 盛하니, 따라서 人氣는 肌肉中에 있다. 秋에는 氣가 收斂하기 시작하고 腠理가 閉하기 시작하니, 따라서 人氣는 皮膚에 있다. 冬에는 氣가 伏藏하고 內로 五藏에 通하니, 따라서 人氣는 骨髓中에 있다.”¹⁶⁾고 하여 四時에 따라 人體氣의 所在가 다름을 설명하였다¹⁷⁾.

四時마다 氣의 所在가 달라지고, 九鍼은 天地四時 陰陽에 上應하니¹⁸⁾, 刺하는 法도 반드시 日月星辰과 四時八正之氣를 살펴야 하고, 氣가 定해지면 이에 刺한다¹⁹⁾. 그러므로 『素問·診要經終論』²⁰⁾, 『素問·水熱

穴』²¹⁾, 『靈樞·本輸』²²⁾ 등에서 刺鍼은 四時에 따라 부위를 달리하고, 깊이를 달리하며, 만일 四時에 맞게 刺鍼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弊害가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

四時에 따라 氣의 소재가 다르고 그를 반영하여 刺鍼을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診脈에 있어서도 四時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象이 다른데,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이를 規矩衡權이라 하였다.

2. 規矩衡權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診을 잘하는 者는 色을 살피고 脈을 눌러서 먼저 陰陽을 分辨하고 淸濁을 살펴서 部分을 알아내고, 喘息을 보고 音聲을 들어서 忖로워하는 바를 알고, 權衡規矩를 자세히 보아서 病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9. “春氣在經脈 夏氣在孫絡 長夏氣在肌肉 秋氣在皮膚 冬氣在骨髓中 帝曰 余願聞其故 岐伯曰 春者 天氣始開 地氣始泄 凍解冰釋 水行經通 故人氣在脈 夏者 經滿氣溢 入孫絡受血 皮膚充實 長夏者 經絡皆盛 內溢肌中 秋者 天氣始收 腠理閉塞 皮膚引急 冬者 蓋藏 血氣在中 內著骨髓 通於五藏”

16) 張介賓. 譯注 類經 第九冊. 서울. 海東醫學社. 2001. pp.53-55. “春時天地氣動 水泉流行 故人氣亦在經脈 夏時氣盛 故溢入孫絡而充皮膚 所以人氣在孫絡 六月建未 是爲長夏土勝之時 經絡皆盛 所以人氣在肌肉中 秋氣始收 腠理始開 所以人氣在皮膚 冬氣伏藏 內通五藏 所以人氣在骨髓中”

17) 이상범, 박영배, 강성길. 四時의 鍼刺法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75. 12(1). p.207.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3. “九鍼 上應天地四時陰陽”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0. “刺之法 必候日月星辰 四時八正之氣 氣定乃刺之”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4. “春刺散俞 及與分理 血出而止 甚者傳氣 間者環也 夏刺絡俞 見血而止 盡氣閉環 痛病必下 秋刺皮膚 循理上下同法 神變而止 冬刺俞竅於分理 甚者直下 間者散下 春夏秋冬 各有所刺 法其所在 春刺夏分 脈亂氣微 入淫骨髓 病不能愈 令人不嗜食 又且少氣 春刺秋分 筋攣 逆氣環爲咳嗽 病不愈 令人時驚 又且哭 春刺冬分 邪氣著藏 令人脹 病不愈 又且欲言語 夏刺春分 病不愈 令人解墮 夏刺秋分 病不愈 令人心欲無言 惕惕如人將捕之 夏刺冬分 病不愈 令人少氣 時欲怒 秋刺春分 病不已 令人惕然 欲有所爲 起而忘之 秋刺夏分 病不已 令人益嗜臥 又且善夢 秋刺冬分 病不已 令人洒洒時寒 冬刺春分 病不已 令人欲臥不能眠 眠而有見 冬刺夏分 病不愈 氣上 發爲諸痺 冬刺秋分 病不已 令人善渴”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213-214. “帝曰 春取絡脈分肉 何也 岐伯曰 春者 木始治 肝氣始生 肝氣急 其風疾 經脈常深 其氣少 不能深入 故取絡脈分肉間 帝曰 夏取盛經分脈 何也 岐伯曰 夏者 火始治 心氣始長 脈瘦氣弱 陽氣留滯 熱熏分腠 內至於經 故取盛經分脈 絕膚而病去者 邪居淺也 所爲盛經者 陽脈也 帝曰 秋取經俞 何也 岐伯曰 秋者 金始治 肺將收斂 金將勝火 陽氣在合 陰氣初勝 濕氣及體 陰氣未盛 未能深入 故取俞以寫陰邪 取合以虛陽邪 陽氣始衰 故取於合 帝曰 冬取井榮 何也 岐伯曰 冬者 水始治 腎方閉 陽氣衰少 陰氣堅盛 巨陽伏沈 陽脈乃去 故取井以下陰逆 取榮以實陽氣 故曰 冬取井榮 春不軌衄 此之謂也”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 “春取絡脈諸榮大經分肉之間 甚者深取之 間者淺取之 夏取諸腧孫絡肌肉皮膚之上 秋取諸合 餘如春法 冬取諸井諸腧之分 欲深而留之 此四時之序 氣之所處 病之所舍 藏之所宜”

이 주하는 바를 알고, 尺寸을 누르고 浮沈滑澹을 살펴서 病이 生하는 바를 아니, 다스림에 허물됨이 없고 診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²³⁾고 하였고,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四變之動에 脈이 그와 더불어 上下하니, 春에 應함은 規이고, 夏에 應함은 矩이고, 秋에 應함은 衡이고, 冬에 應함은 權이다.”고 하였다. 이로써 『內經』에서 規矩衡權은 진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 規矩衡權에 대한 歷代 醫家說

規矩衡權으로 脈을 설명한 篇은 『素問·脈要精微論』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黃帝가 말하기를, 脈은 그 四時에 動함이 어떠한가? 病의 所在 어떻게 알고, 病의 所變은 어떻게 알고, 病이 때로 內에 있음은 어떻게 알고, 病이 때로 外에 있음은 어떻게 아는가? 이 다섯을 묻고자 청하니 可히 얻어 들을 수 있겠는가? 岐伯이 답하길, 청컨대 그 하늘과 더불어 운행하는 것을 말하겠다. 萬物之外와 六合之內에서 天地之變과 陰陽之應은 저 春의 暖이 夏의 暑가 되고 저 秋의 忿이 冬의 怒가 된다. 四變之動에 脈이 더불어 上下하니, 春에 應함은 規이고 夏에 應함은 矩이고, 秋에 應함은 衡이고 冬에 應함은 權이다. 이러한 故로 冬至에서 45일은 陽氣가 微上하고 陰氣가 微下하며, 夏至에서 45일은 陰氣가 微上하고 陽氣가 微下한다. 陰陽에는 때가 있으니 脈이 더불어 期가 되는데, 期함이 相失하면 脈이 나뉜 바를 알게 되고 나뉜 곳에 期가 있으므로 죽는 때를 알게 된다. 미묘함은 脈에 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살피는 데는 紀가 있으니 陰陽을 따라 시작하고, 시작에는 經이 있으니 五行을 따라 生하고, 生함에는 度가 있으니 四時가 마땅함이 된다. 補瀉를 실수하지 말아서 天地와 더불어 하나가 되도록 하고, 하나의 情況을 얻으면 死生을 알게 된다. 이러한 故로 聲은 五音과 合하고 色은 五行과 合하고, 脈은 陰陽과 合한다.”²⁴⁾고 하였다. 이

에 대하여 注家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楊上善은 “春夏에는 陽氣가 終始하니, 春의 3개월에 陽氣가 시작되어 氣가 和한 날을 暖하다고 하고, 夏의 3개월에 陽이 盛하여 暑熱함은 이에 이러한 春의 暖이 增長하여 그와 같이 된 것이다. 秋冬에는 陰氣가 終始하니, 秋의 3개월에 陰氣가 시작되어 風이 高하고 氣가 勁하므로 急이라고 名하였고, 冬의 3개월에 陰氣가 嚴烈함은 이에 이러한 秋의 涼함이 增長하여 그와 같이 된 것이다. 暖·暑·急·怒는 天의 運으로 四氣가 變動하는 것이고, 사람의 經脈은 저 四氣와 더불어 上下로 變動하니 또한 다르지 않다. 春夏의 脈은 人迎이 寸口보다 大하므로 上이 되고, 寸口가 人迎보다 小하므로 下가 된다. 이는 곧 盛衰로 上下가 된다. … 春三月의 때에는 少陽之氣가 用하여 萬物이 始生하지만 아직 正하지는 않았으므로 規에 應한다고 하고, 夏三月의 때에는 太陽之氣가 用하여 萬物이 長正하므로 矩에 應한다고 하고, 秋三月의 때에는 少陰之氣가 用하여 萬物이 長極하므로 衡에 應한다고 하고, 冬三月의 때에는 太陰之氣가 用하여 萬物이 根에 歸하므로 權에 應한다고 한다. 冬至以後에는 陽氣가 점차 長하므로 微上이라 하고 陰氣가 점차 降하므로 微下라고 한다. 夏至以後에는 陰氣가 점차 長하므로 微上이라고 하고 陽氣는 점차 降하므로 微下라고 한다. 陰陽으로써 四時가 있고 四時와 脈을 더불어 期를 삼으니, 期는 四시에 있게 된다. 相得과 失處로 곧 四時の 脈이 四時の 사이에서 나뉘는 알 수 있고, 脈에 四時를 나눈 期가 있으면 死生の 期를 알 수 있다.”²⁵⁾고 하였다.

知病之所變奈何 知病乍在內奈何 知病乍在外奈何 請問此五者 可得聞乎 岐伯曰 請言其與天運轉大也 萬物之外 六合之內 天地之變 陰陽之應 彼春之暖 爲夏之暑 彼秋之忿 爲冬之怒 四變之動 脈與之上下 以春應中規 夏應中矩 秋應中衡 冬應中權 是故冬至四十五日 陽氣微上 陰氣微下 夏至四十五日 陰氣微上 陽氣微下 陰陽有時 與脈爲期 期而相失 知脈所分 分之有期 故知死時 微妙在脈 不可不察 察之有紀 從陰陽始 始之有經 從五行生; 生之有度 四時爲宜 補瀉勿失 與天地如一 得一之情 以知死生 是故聲合五音 色合五行 脈合陰陽”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5. “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 審清濁 而知部分 視喘息 聽音聲 而知所苦 觀權衡規矩 而知病所主 按尺寸 觀浮沈滑澹 而知病所生 以治無過 以診則不失矣”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57-58. “帝曰 脈其四時動奈何 知病之所在奈何

2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195-196. “春夏者 陽氣終始也 春之三月 陽氣之始 氣和日暖 夏之三月 陽盛暑熱 乃是春暖增長爲之也 秋冬者 陰氣終始也 秋之三月 陰氣之始 風高氣勁 故名爲急 冬之三月 陰氣嚴烈 乃是秋涼增長爲之也 暖暑急怒 是天之運 四氣變

王冰은 “陰陽의 運轉을 보고서 陰陽의 볼 수 없는 것들을 밝힐 수 있음을 말한다. 六合은 四方과 上下를 말한다. 봄의 暖함이 여름의 暘가 되는 것은 陽이 생하여 盛함에 이르는 것을 말함이고, 가을의 忿함이 겨울의 怒함으로 되는 것은 陰이 적어지다가 壯해짐을 말한다. 忿을 한 곳에서는 急이라고도 하였는데, 秋氣의 勁急함을 말한다. 春脈은 熨弱하고 輕虛而滑하여 規의 象과 같으니, 中과 外가 모두 그러하므로 春에 應함은 規이다. 夏脈은 洪大하고 滑數을 兼하여 矩의 象과 같으니, 바로고 平하게 할 수 있으므로 夏에 應함은 矩이다. 秋脈은 浮毛하고 輕瀼而散하여 저울대의 모양과 같으니, 高下가 반드시 平하므로 推에 應함은 衡이다. 動脈은 石과 같고 沈而滑을 兼하여 저울추의 象과 같으니, 아래로 하여 衡에서 떨기 때문에 冬에 應함은 權이다. 秋는 衡에 應하고 冬은 權에 應하는 것은 脈이 高下를 다르게 處함이 이와 같다는 말이다. 이는 곧 陰陽之氣를 따른 것이므로 이와 같이 네 가지의 應함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陰陽升降의 기준을 살펴보면 經脈이 번갈아 옮겨가는 象을 알 것이고, 氣候가 번갈아 옮겨가는 失을 살펴보면 氣血이 分合하는 期를 아니, 期를 나눔에 어긋남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시절을 안다. 陰陽升降으로 미륵은 精微의 妙用이 모두 經脈의 氣候에 있으므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陰陽으로써 察候하는 綱紀를 삼는다. 처음에 經脈을 살펴서 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五行의 衰王을 따라 準度를 삼으며, 太過와 不及의 形診을 구하는 것은 모두 四時에 應하는 것이 生氣의 마땅한 바가 되기 때문이다 … 聲은 宮商角徵羽를 나타내므로 五音에 合하고, 色은 靑黃赤白黑을 나타내므로 五行에 合하고, 脈은 寒暑의 休王을 드러내므로 陰陽之氣에 合한다.”²⁶⁾고 하였다.

動人之經脈與彼四氣 上下變動 亦不異也 春夏之脈 人迎大於寸口 故爲上也 寸口小於人迎 故爲下也 此乃盛衰爲上下也 … 春三月時 少陽之氣用 萬物始生未正 故曰應規也 夏三月時 太陽之氣用 萬物長正 故曰應矩也 秋三月時 少陰之氣用 萬物長極 故曰應衡也 冬三月時 太陰之氣用 萬物歸根 故曰應權也 冬至以後 陽氣漸長 故曰微上 陰氣漸降 故曰微下也 夏至以後 陰氣漸長 故曰微上 陽氣漸降 故曰微下也 陰陽以有四時 四時與脈爲期 爲期在於四時 相得失處 卽知四時之脈 分在四時之際 脈分四時有期 則死生之期可知”

張介賓은 “春에는 生하고 夏에는 長하고 秋에는 收하고 動에는 藏하니, 이러한 陰陽四變의 動에 脈이 또한 그를 따라 上下한다. 規라는 것은 圓을 만드는 기구이다. 春氣는 發生하고 圓活而動하므로 規에 應하며, 人脈은 그에 應하기 때문에 圓滑하다. 矩라는 것은 方을 만드는 기구이다. 夏氣는 茂盛하고 盛이 極하여 止하므로 矩에 應하며, 人脈은 그에 應하기 때문에 洪大하면서 方正하다. 衡은 平이며 저울대가 가로놓인 것이다. 秋氣는 萬물이 보배로워지고 모두 成하여 地面보다 平하므로 衡에 應하며, 人脈은 그에 應하기 때문에 浮毛함이 外에 나타난다. 權은 저울추이다. 冬氣는 閉藏하므로 權에 應하며, 人脈은 그에 應하기 때문에 沈石함이 內에 伏해 있다. 무릇 이러한 規矩權衡이라는 것은 모두 陰陽升降의 理를 發明하고 四時脈氣의 變象에 合한 것이다. 冬至에는 一陽이 生하므로 冬至後 45日인 立春에 이르면서 陽氣는 점차 微上하고, 陽이 微上하면 陰은 微下한다. 이는 이른바 陰陽에 때가 있음이다. 脈과 더불어 期가 되는 것은 脈은 時를 따라 變遷함이고, 期가 相失하는 것은 春規·夏矩·秋衡·冬權이 道에 合하지 않음이다. 脈이 나뉜 바라는 것은 五藏의 脈이 각각 속하는 바가 있음을 말함이고, 나뉠에 期가 있다는 것은 衰王에 각각 그 때가 있음을 말한다. 이를 아는 者는 곧 死生의 時를 알게 된다.”²⁷⁾고 하였다.

26)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注.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309-313. “指可見陰陽之運轉以明陰陽之不可見也 六合謂四方上下也 春暖爲夏暑 言陽生而至盛 秋忿而冬怒 言陰少而之壯也 忿一爲急 言秋氣勁急也 春脈熨弱輕虛而滑 如規之象 中外皆然 故以春應中規 夏脈洪大兼之滑數 如矩之象 可正平之 故以夏應中矩 秋脈浮毛輕瀼而散 如稱衡之象 高下必平 故以秋應中衡 冬脈如石兼沈而滑 如稱權之象 下遠於衡 故以冬應中權也 以秋中衡冬中權者 言脈之高下異處 如此爾 此則隨陰陽之氣 故有斯四應不同也 察陰陽承康之準 則知經脈遞遷之象 察氣候遞遷之失 則知氣血分合之氣 分期不差 故知人死之時節 推陰陽升降 精微妙用 皆在經脈之氣候 是以不可不察 故始以陰陽爲察候之綱紀 言始所以知有經脈之察候司應者 何哉 皆從陰陽衰王而爲準度也 徵求太過不及之形診 皆以應四時者爲生氣所宜也 … 聲表宮商角徵羽 故合五音 色見靑黃赤白黑 故合五行 脈彰寒暑之休王 故合陰陽之氣也”

27) 張介賓. 譯注 類經 第二冊. 서울. 海東醫學社. 2001. pp.322-326. “春生夏長 秋收冬藏 是卽陰陽四變之動而脈亦隨之 以上下也 規者 所以爲圓之器 春氣發生 圓活而動 故應中規 而人脈應之 所以圓滑也 矩者 所以爲方之器 夏氣茂

高士宗은 “사람의 陰陽升降은 天運의 環轉·廣大와 같으므로, 그것을 天運의 轉大와 더불어 말해주기를 請하신 것이다. 天運은 轉大하여 萬物之外에서 감싸고 六合之內에 行하니, 天이 베풀고 地가 生하면 天地之變이 있다. 사람의 陰陽이 天地에 應하면 陰陽의 應이 있다. 天地에는 四時之氣가 있다. 그러므로 저 春의 暖이 夏의 暑가 되고 저 秋의 忿이 冬의 怒가 된다. 대저 春의 暖과 夏의 暑와 秋의 忿과 冬의 怒는 이에 四變이니, 이러한 變이 있으면 이러한 氣가 있음은 곧 四變의 動이니, 사람의 脈象도 四變의 動과 더불어 氣가 서로 上下한다. 그와 더불어 上下한다는 것은 春時에는 天氣가 始生하니 脈이 應하여 軟弱浮滑하면 圓轉하여 規의 度에 맞게 되고, 夏時에는 天氣가 方正하니 脈이 應하여 洪大周遍하면 充滿하여 矩의 度에 맞게 되고, 秋時에는 天氣가 始降하니 脈이 應하여 平靜輕虛하면 平準하여 衡의 度에 맞게 되고, 冬時에는 天氣가 閉藏하니 脈이 應하여 沈石沈重하면 下沈하여 權의 度에 맞게 된다. 이처럼 四變의 動에 脈이 그와 더불어 上下한다. 脈이 四時陰陽과 더불어 서로 上下하게 됨을 相失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故로 冬至 45日에는 冬至에 一陽이 初生하여 冬至에서부터 立春에 이르면서 陽氣가 微上하고, 陽氣가 微上하면 陰氣가 微下한다. 夏至 45日에는 夏至에 一陰이 初生하여 夏至에서부터 立秋에 이르면서 陰氣가 微上하고, 陰氣가 微上하면 陽氣가 微下한다. 陰陽이 上下함에는 때가 있고, 곧 함께하는 人身의 脈도 期를 삼는데, 期에 이르렀는데도 上下하지 않으면 이는 期가 相失한 것이다. 그 陽氣가 不上하고 陰氣가 不上하는 것을 分別함은 바로 脈이 나뉘는 바를 아는 것이다. 陽氣가 不上하면 春에 죽고 陰氣가 不上하면 秋에 죽으니, 이처럼 나뉘는 期가 있으므로 죽는 때를 알게 된다.”²⁸⁾고 하였다.

盛極而止 故應中矩 而人脈應之 所以洪大方正也 衡 平也 秤橫也 秋氣萬寶俱成 平於地面 故應中衡 而人脈應之 所以浮毛而見於外也 權 秤錘也 冬氣閉藏 故應中權 而人脈應之 所以沈石而伏於內也 凡茲規矩權衡者 皆發所以浮升降之理 以合乎四時脈氣之變象也 冬至一 而 故冬至後四十五日以至立春 陽氣以漸而微上 陽微上 則陰微下矣 此所謂陰陽有時也 與脈爲期者 脈隨時而變遷也 期而相失者 謂春規夏矩 秋衡冬權 不合於道也 如脈所分者 謂五臟之脈 各有所屬也 分之有期者 謂衰王各有其時也 知此者 則知死生之時矣”

章楠은 “四時가 번갈아 運함에 人身의 陰陽之氣는 그를 따라 進退하여 脈에 象으로 나타하니, 規·矩·衡·權은 上下하며 相應함에 기준이 되는 度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脈이 氣候에 不應하여 太過·不及·相生·相克이 있다면 그것으로 病的 輕重·吉凶을 分別할 수 있다. … 冬至에서 45日인 立春의 節氣에는 陽氣가 地上에서 微出하고 陰氣는 地中에서 微下하여 萬物의 生氣가 發動하고, 脈은 石에서부터 弦으로 變하여서 春陽之氣에 應한다. 夏至에서 45日인 立秋의 節氣에는 陰氣가 地上에서 微出하고 陽氣가 地中에서 微下하여 萬物이 長足하여 열매를 이루고, 脈은 곧 鉤로부터 毛로 變하여서 秋收之氣에 應한다. 陽氣가 微로부터 盛해지면 弦脈은 鉤로 變하는데, 鉤라는 것은 浮洪함이다. 陰氣가 微로부터 盛해지면 毛脈은 石으로 變하는데, 石이라는 것은 沈實함이다. 이는 陰陽이 升降하고 流行하면서 萬物을 生化하므로, 四時의 不同이 있음에 脈이 더불어 期會와 같이 相應하는 것이다. 만일 期함이 相失되면 脈氣가 天地氣化와 分離됨을 알게 되므로 不相應이다. 그 分離를 보고 期를 둘 적에 或 相生·相克으로 그 死生의 時日을 알 수 있는데, 만일 春에 秋脈이 나타나면 金克木이 되어 죽고, 冬脈이 나타나면 水生木으로 살 수 있다.”²⁹⁾고 하였다.

28)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서울, 一中社, 1982, pp.126-128. “人之陰陽升降 如天運之環轉廣大 故曰請言其與天運轉大也 天運轉大 包乎萬物之外 行於六合之內 天施地生 則有天地之變 人之陰陽應乎天地 則有陰陽之應 天地有四時之氣 故彼春之暖 爲夏之暑 彼秋之忿 爲冬之怒 夫春暖夏暑 秋忿冬怒 乃四變也 有是變 則有是氣 乃四變之動也 人之脈象 與四變之動氣相爲上下也 所以與之上下者 春時天氣始生 脈應軟弱浮滑 則圓轉而中規之度矣 夏時天氣正方 脈應洪大周遍 則充滿而中矩之度矣 秋時天氣始降 脈應平靜輕虛 則平準而中衡之度矣 冬時天氣閉藏 脈應沈石深重 則下沈而中權之度矣 此四變之動 而脈與之上下也 脈與四時陰陽 相爲上下 不可相失 是故冬至四十五日 冬至一陽初生 從冬至至立春 陽氣微上 陽氣微上 則陰氣微下矣 夏至四十五日 夏至一陰初生 從夏至至立秋 陰氣微上 陰氣微上 則陽氣微下矣 陰陽上下有時 卽與人身之脈爲期 至期而不上下 是期而相失也 分別其陽氣不上 陰氣不上 是知脈知所分也 陽氣不上 死於春 陰氣不上 死於秋 是分之有期 故知死時也”

29) 章楠, 靈素節注類篇, 서울, 一中社, 1986, pp.168-169. “四時迭運 而人身陰陽之氣 隨之進退 而現象於脈 如規矩衡權 上下相應 準而有度 如脈不應氣候 而有太過不及相生相克 卽可辨其病之輕重吉凶也 … 冬至四十五日 立春節也 陽氣微出於地上 陰氣微下於地中 萬物生氣發動 而脈由石變

馬蒔는 “대개 四時에는 變이 있으니, 우리 사람의 脈은 다만 그를 따라 上下할 뿐이다. 上下라는 것은 浮沈이다. 바로 春時의 脈은 그 應함이 規에 中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規는 둥근 기구이니, 春脈이 軟弱·輕虛而滑한 것이 마치 規의 象이 圓活而動한 것과 같으므로 春應中見이라고 하였다. 夏時의 脈은 그 應함이 矩에 中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矩는 각진 기구이니, 夏脈이 洪大滑數한 것이 마치 矩의 象이 方正하면서 盛한 것과 같으므로 夏應中矩라고 하였다. 秋時의 脈은 그 應함이 마치 衡에 中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秋脈이 浮毛·輕濇而散한 것이 마치 衡의 象과 같으니, 그에서 있는 것을 取하였으므로 秋應中衡이라고 하였다. 冬時의 脈은 그 應함이 權에 中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冬脈은 石에 沈而滑을 兼한 듯하여 權의 象과 같으니, 그 勢가 아래로 늘어지므로 冬應中權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떠한 인가? 대개 冬至 45日 以後는 이에 小寒과 大寒에서 立春에 이르는 시기인데, 陽氣가 점차 上하고 陰氣는 점차 下하여 오직 陽氣만이 점차 上하므로 春에는 暖하게 되고, 점차 暑에 이르면서 暑가 되니, 春脈이 規에 中하고 夏脈은 矩에 中하는 것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夏至 45日 以後는 이에 小暑와 大暑에서 立秋에 이르는 시기인데, 陰氣는 점차 上하고 陽氣는 점차 下하여 오직 陽氣만이 점차 下하게 되므로 秋에는 忿하게 되고 점차 冬에 이르면서 怒가 되니, 秋脈은 衡에 中하고 冬脈은 權에 中하게 되는 것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陰陽에는 時가 있고 脈이 더불어 上下함에 期가 있는데 期는 不同하니, 脈에 四時의 分이 있음을 안다. 分에는 期가 있어서 脈에 死生の 時가 있음을 안다. 미묘함은 脈에 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살피는 데는 紀가 있으니 陰陽의 氣를 따라 始하며, 始에는 經이 있으니 五行을 따라 配하여 生하며, 生에 度가 있음은 四時에 각각 마

땅한 바가 있음이다. 鍼을 用하는 者는 始를 따라 補瀉함에 실수하지 말아야 하다. 天地陰陽升降之氣와 더불어 合하여 하나가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됨을 얻은 情으로 死生을 알 수 있는데 오직 人身만이 능히 天地陰陽과 合할 수 있다. 그러므로 聲이 五音에 合하고 色이 五行에 合하고 脈이 陰陽과 合하는 어떠한 것이 하나의 理로 配어지지 않겠는가?”³⁰⁾라고 하였다.

醫家들은 天이 運行하여 四時가 變함에 따라 春에는 暖하고 夏에는 暑하고 秋에는 忿하고 冬에는 怒함에 人身의 陰陽之氣는 그를 따라 上下하니, 그 모습이 春에는 規가 應하고, 夏에는 矩가 應하고, 秋에는 衡이 應하고, 冬에는 權이 應한다고 하고, 이러한 脈象으로 期를 삼아 死生の 時를 알 수 있다고 한 점은 모두 비슷하다. 다만 楊上善은 春夏秋冬 3개월 동안에 각각 少陽之氣·太陽之氣·少陰之氣·太陰之氣가 用하여 萬物에 나타나는 모습이 規·矩·衡·權이라고 하였고, 高士宗은 陽氣가 不上하면 春에 죽고 陰氣가 不上하면 秋에 죽는다고 하였고 章楠은 相生相克으로 그 死生の 時를 알 수 있으니 만일 春에 秋脈이 나타나면 金克木이 되어 죽고 冬脈이 나타나면 水生木으로 살 수 있다고 하여 死生之期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등이 독특한 주장이다.

醫家들이 주장한 規矩衡權을 정리하면 표1.과 같

弦 以應春陽之氣 夏至四十五日 立秋節也 陰氣微出於地上 陽氣微下於地中 萬物長足而成實 脈即由鉤而變毛 以應秋收之氣也 陽氣由微而盛 則弦脈變鉤 鉤者 浮洪也 陰氣由微而盛 則毛脈變石 石者 沈實也 此陰陽升降流行 生化萬物 故有四時之不同 與脈相應如期會者 若期而相失 知脈氣與天地氣化分離 故不相應 視其分離有期 或相生相克 即可知其死生之時日 如春見秋脈 金克木爲死 見冬脈 水生木可生也”

30) 馬蒔. 新編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14. “蓋四時有變 而吾人之脈 特隨之而上下耳 上下者浮沈也 正以春時之脈 其應如中乎規 規者 所以爲員之器也 春脈軟弱輕虛而滑 如規之象員活而動 故曰春應中規也 夏時之脈 其應如中乎矩 矩者 所以爲方之器也 夏脈洪大滑數 如矩之象 方正而盛 故曰夏應中矩也 秋時之脈 其應如中乎衡 秋脈浮毛輕濇而散 如衡之象 其取在乎 故曰秋應中衡也 冬時之脈 其應如中乎權 冬脈如石兼沈而滑 如權之象 其勢下垂 故曰冬應中權也 若是者何也 蓋以冬之四十五日以後 乃小寒大寒 以至立春也 陽氣漸上 陰氣漸下 惟陽氣漸上 故在春爲暖 而漸至於暑 則爲暑 春脈之所以中規 夏脈之所以中矩者 有由然矣 夏至四十五日以後 乃小暑大暑以至立秋也 陰氣漸上 陽氣漸下 惟陽氣漸下 故在秋爲忿 而漸至於冬則爲怒 秋脈之所以中衡 冬脈之所以中權者 有由然矣 陰陽有時與脈之上下有期 期有不同 知脈有四時之分 分之有期 知脈有死生之時 微妙在脈 不可以不察也 察之有紀 從陰陽之氣而始 始之有經 從五行之 配而生 生之有度 四時各有所宜 用鍼者能補瀉隨時 而勿失 與天地陰陽升降之氣 合而爲一 則得此一者之情可以知死生矣 惟人身能合天地陰陽也 故聲合五音 色合五行 脈合陰陽 何者而非一理而貫之哉”

다.

2) 規矩衡權의 意味

規矩衡權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도 기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規는 圓形을 그리는 도구인 그림쇠의 뜻인데, 본래는 ‘夫 + 見’으로 ‘丈夫의

단어로서 법도나 본보기라는 뜻인 規矩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規矩는 規矩準繩의 준말이다. 規矩準繩은 목수가 쓰는 그림쇠, 자, 수준기, 먹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가치의 法度 기준을 뜻한다. 『孟子·離婁章句上』에서는 “離婁의 눈뵈움과 公輸子의 솜씨로도 規矩를 쓰

	規	矩	衡	權
楊上善	春三月時 少陽之氣用 萬物始生未正 故曰應規也	夏三月時 太陽之氣用 萬物長正 故曰應矩也	秋三月時 少陰之氣用 萬物長極 故曰應衡也	冬三月時 太陰之氣用 萬物歸根 故曰應權也
王冰	春脈爽弱輕虛而滑 如規之象 中外皆然 故以春應中規	夏脈洪大兼之滑數 如矩之象 可正平之 故以夏應中矩	秋脈浮毛輕瀟而散 如稱衡之象 高下必平 故以秋應中衡	冬脈如石兼沈而滑 如稱權之象 下遠於衡 故以冬應中權也
張介賓	規者 所以爲圓之器 春氣發生 圓活而動 故應中規而人脈應之 所以圓滑也	矩者 所以爲方之器 夏氣茂盛 盛極而止 故應中矩而人脈應之 所以洪大方正也	衡 平也 稱橫也 秋氣萬寶俱成 平於地面 故應中衡 而人脈應之 所以浮毛而見於外也	權 秤錘也 冬氣閉藏 故應中權 而人脈應之 所以沈石而伏於內也
高士宗	春時天氣始生 脈應軟弱浮滑 則圓轉而中規之度矣	夏時天氣正方 脈應洪大周遍 則充滿而中矩之度矣	秋時天氣始降 脈應平靜輕虛 則平準而中衡之度矣	冬時天氣閉藏 脈應沈石深重 則下沈而中權之度矣
章楠	冬至四十五日 立春節也 陽氣微出於地上 陰氣微下於地中 萬物生氣發動 而脈由石變弦 以應春陽之氣	陽氣由微而盛 則弦脈變鉤 鉤者 浮洪也	夏至四十五日 立秋節也 陰氣微出於地上 陽氣微下於地中 萬物長足而成實 脈即由鉤而變毛 以應秋收之氣也	陰氣由微而盛 則毛脈變石 石者 沈實也
馬蒔	正以春時之脈 其應如中乎規 規者 所以爲員之器也 春脈軟弱輕虛而滑 如規之象員活而動 故曰春應中規也	夏時之脈 其應如中乎矩 矩者 所以爲方之器也 夏脈洪大滑數 如矩之象 方正而盛 故曰夏應中矩也	秋時之脈 其應如中乎衡 秋脈浮毛輕瀟而散 如衡之象 其取在乎 故曰秋應中衡也	冬時之脈 其應如中乎權 冬脈如石兼沈而滑 如權之象 其勢下垂 故曰冬應中權也

표 1. 規矩衡權에 대한 醫家說

識見이 法에 맞다’는 의미이며, 모든 것이 원만하다는 의미로 인해 둥근 것, 원을 그리는 그림쇠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矩는 ‘矢(곧고 바르다) + 巨(손잡이가 있는 자)’로 方形을 그리는 곱자, 각도나 길이를 재는 정확한 자의 뜻³¹⁾을 지니고 있다. 規와 矩는 한

지 않으면 方과 圓을 이루지 못한다. … 聖人은 이미 視力을 다하시고 規矩準繩으로써 계속하시니, 方圓平直이 이루다 쓸 수 없을 정도이다.”³²⁾고 하여 天下를 다스리는 法度를 물건을 만드는 도구인 規矩準繩

31)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0. p.1443.

32) 成百曉 譯. 懸吐完譯孟子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6. pp.277-280.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員 … 聖人 既竭目力焉 繼之以規矩準繩 以爲方圓平直 不可勝用也”

에 비유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같은 편에서 “規矩는 方과 圓의 지극함이요, 聖人は 人倫의 지극함이다.”³³⁾고 하여 聖인이 사람이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을 規矩가 方圓을 만드는 이치의 지극함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衡은 저울대로, 字源은 세로의 쇠뿔에 대하여 가로 건넌 나무의 뜻이고, 傳하여 天秤의 뜻도 나타낸다³⁴⁾. 權은 저울추의 뜻이다. 權衡도 規矩처럼 둘만 따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權衡은 저울추와 저울대로 균형의 뜻을 나타낸다. 『內經』에서 위의 두 편 외에 規矩를 언급한 곳은 없지만, “平治於權衡”³⁵⁾, “陰陽反他 治在權衡相奪 奇恒事也 揆度事也”³⁶⁾,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³⁷⁾, “夫五運之政 猶權衡也 高者抑之 下者舉之 化者應之 變者復之 此生長化收藏之理 氣之常也 失常則天地四塞矣”³⁸⁾와 같이 權衡을 언급한 곳은 있는데, 균형과 평형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3) 規矩衡權의 意義

① 陰陽의 升降

規·矩·衡·權은 한의학 외에도 일반적으로 法度와 平衡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脈要精微論」에서는 春의 暖이 夏의 暘가 되고 秋의 忿이 冬의 怒가 되며 이러한 四變의 動에 脈이 더불어 上下하는 것이 規·矩·衡·權이며, 冬至와 夏至 以後로 각각 陽氣와 陰氣가 上升·下降함을 말하였다. 陽氣와 陰氣가 각각 上升하고 下降하는 것은 24節氣方位圖를 참고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陰陽이 消長하는 기본체인 12卦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子月에 一陽이

始生하여 大成卦 復으로부터 臨·泰·大壯·夬·乾으로 陽이 極盛하고, 極則反하는 원리에 따라 午月에 一陰이 始生하여 姤로부터 遯·否·觀·剝·坤은 陰이 極盛해지는 과정으로 12時의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준다(그림 1. 참조)³⁹⁾. 이와 같은 陰陽四時의 변화에 人身之氣의 所在는 달라지며, 그에 應하여 脈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規矩衡權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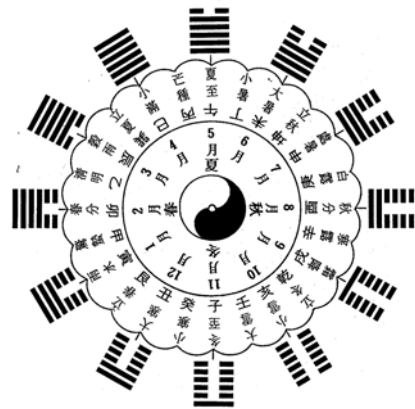


그림 1. 24節氣方位圖

② 人身之氣의 升降

가. 春應中規

春에 應함은 規라고 하였는데, 規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圓을 그리는 그림쇠이다. 規는 春의 暖에 因하며, 冬至로부터 始生한 陽氣는 微上하고 陰氣는 점차 微下하는 象을 말한다. 앞에서 注家들이 春脈은 軟弱輕虛而滑하니 그것이 規라 하기도 하고, 規는 圓을 그리는 도구이므로 脈도 圓活而動하며 그것이 規라고 하였다. 그러나 規가 圓을 그리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圓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玉機眞藏論」등에 春脈은 輕虛而滑하다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脈要精微論」은 四時之變에 脈이 더불어 上下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春應中規는 春脈의 輕虛而滑이라고 정의를 내리기에 미진한 점

33) 成百曉 譯. 懸吐完譯孟子集註.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06. p.284. “規矩 方員之至也 聖人 人倫之至也”

34)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0. p.1854.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49.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52.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86.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46.

39) 金碩眞. 大山主役講解(上經). 서울. 大有學堂. 1993. p.58.

이 있다. 春應中規하여 脈이 나타나지만, 規는 직접적으로 脈象을 뜻하기 보다는 春에 應하여 人身의 陽氣와 陰氣가 上下함이 脈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기준이나 법도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周易參同契』에 “真人潛深淵 浮游守規中”⁴⁰⁾이라 하여 真人은 깊은 연못에 잠겨있는 듯 유유히 丹田을 지킨다고 하였는데, 이 구절은 수행의 경지이기도 하지만 內丹과 精에서 나타나는 元神을 말하는 것으로, 真人이 깊은 연못에 잠겨있는 듯이 기운을 발설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였고, 유유히 ‘規中’을 지킨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規中은 원의 중간으로 근원에 해당하는 공간을 뜻하며 내단적으로는 ‘意守丹田’을 뜻한다 할 수 있다.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필요하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원의 크기는 달라지므로 그 때마다 規의 길이도 각기 달라진다. 冬에 인체의 깊숙한 곳에 머무르고 있던 陽氣가 冬至로부터 春에 이르면서 外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이와 유사한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달라지듯이 歲의 太過不及이나 사람의 元氣정도에 따라 陽氣가 뻗어나가는 거리가 달라지며, 이에 또한 脈이 應한다. 이와 같이 陽氣가 微上하는 모습이 바로 規이며, 四時脈으로 구체화해서 말하면 弦이 되고, 그 氣가 來去함이 軟弱輕虛하면서 端直以長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夏應中矩

夏에 應함은 矩라고 하였는데, 矩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方을 그리는 곱자이다. 矩는 夏의 暑로 인하여, 春보다 盛해진 陽氣가 極盛하여 다시 陰氣가 始生하게 되는 象을 말한다. 앞에서 注家들은, 夏脈의 洪大함이 矩라 하기도 하였고, 矩는 方을 그리는 도구이므로 脈이 方正하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矩가 方을 그리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方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夏에는 陽氣가 盛해지므로 脈이 洪大할 수는 있지만 矩하다는 것이 洪大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矩를 陽氣와 陰氣의 升降으로써 설명한다면, 夏가 되면 陽氣는 春보다 더욱 升하여 外로 뻗어나가고 盛해진다. 하지만 夏至인 午月이 되면 姤卦와 같이 陰氣가 始生하여 上升하기 시작하면서 陽氣는 반대로 下降을 시작하게 되는데, 人身의 陽氣 역시 春을 이어 升하여 기운이 전체적으로 盛滿해지고는 다시 降하려고 하니, 이러한 모습이 矩이다. 또한 方을 그리는 도구인 矩는 그 굽은 정도가 용도에 따라서 角度를 달리하는데, 人身之氣도 歲의 太過不及이나 사람의 元氣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의 矩처럼 정도를 달리한다. 이러한 모습이 矩이며, 四時脈으로 말하면 鉤가 되고 그 氣는 來盛去衰하다.

다. 秋應中衡

秋에 應함은 衡이라고 하였는데, 衡은 저울대이고, 秋의 忿에 因하며, 夏至로부터 始生한 陰氣가 微上하고 陽氣는 점차 微下하는 象을 말한다. 저울대는 대 저울의 눈금이 새겨져 있는 몸 부분 또는 저울추를 거는 막대기로, 한쪽 가장자리에는 추를 매달고 다른 한쪽에는 물건을 매달아 무게를 재는 기구이다. 저울대가 반듯하게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추를 계산하여 물건의 무게를 알아내는데, 이 평형은 어느 한쪽이 조금만 무거워도 바로 기울어지고, 평형인 때에도 방심하면 바로 기울어져 한 쪽 가장자리는 올라가고 다른 가장자리는 아래로 내려오려는 氣勢이다.

秋에는 夏至 이후로 陰氣는 上升하고 陽氣는 下降하니, 盛滿했다가 약간 굽어서 下降을 하려는 人身의 氣가 금방이라도 내려갈듯 하면서도 아직 내려가지는 않은 채로 불안정하게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기울어지기 쉬운 衡의 모습과 같으며, 이러한 象이 注家들은 설명한 平正輕虛인 듯하다. 「玉機眞藏論」에서는 秋脈은 浮와 같다고 하였고, 「平人氣象論」이나 「宣明五氣」에서는 萬物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이 홀로 있는 豪毛와 같으면서 輕虛而浮하다는 毛를 秋脈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일부 뜻이 통한다. 그러나 浮나 毛는 衡의 의미에 포함되므로 衡이 곧 浮脈이나 毛脈인 것은 아니다.

라. 冬應中權

40)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李允熙 譯註. 參同契闡幽. 서울. 驪江出版社. p.391.

冬에 應함은 權이라고 하였는데, 權은 저울대 한쪽에 걸거나 저울판에 올려놓는 일정한 무게의 쇠인 저울추로, 저울대에 걸면 무게의 방향이 항상 아래로만 향한다. 權은 冬의 怒로 因하는데, 이 때에는 陽氣가 秋보다 下降하고 陰氣가 더욱 盛해져서 陽氣가 最大로 升했던 夏와는 반대로 陽氣가 最大로 降하여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니, 이러한 모습을 「脈要精微論」에서 “冬日에는 骨에 있으니 蟄蟲은 완전히 들어가고 君子는 방안에 앉아있다.”⁴¹⁾고 하였다.

이와 같이 冬에 陽氣가 人體內部 깊숙이 모여 있고 脈이 그에 應하는 모습을 「玉機眞藏論」에서 “冬脈如營”⁴²⁾이라고 하였고, 「陰陽別論」에서는 “陽이 至하여 絶하게 鼓하는 것을 石이라 한다.”⁴³⁾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冬應中權과 통한다. 卦로는 陽爻보다 陰爻가 더 많아지면서 모두 陰爻인 坤卦가 되는 것이 權이고, 冬至에 이르러 地雷復이 되어 다시 陽이 始生하면 規가 應하게 된다.

3. 逆四時

『素問·八正神明論』에 “四時は 春夏秋冬의 氣가 있는 곳을 나눈 것이니, 時에 맞게 그를 고르게 해야 한다.”⁴⁴⁾고 하여 사계절의 氣가 있는 곳으로 나뉜 四時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는 四時에 따라 氣가 달라지는 天의 運行에 맞게 人身이 應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春夏秋冬의 養生法을 다르게 하였고, 陰陽四時에 順하면 病이 없지만 逆하면 病이 들거나 甚하면 죽게 된다고 하여 時를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무릇 四時陰陽이라는 것은 萬物의 根本이다. 따라서 聖人は 春夏에는 陽을 養하고 秋冬에는 陰을 養하여 그 根本을 따랐다. 그러므로 萬物과 더불어 生長의 門에서 浮沈을 함께 한다.

그 根을 逆하면 그 本을 伐하여 그 眞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陰陽四時라는 것은 萬物의 終始이고, 死生의 本이니, 그를 逆하면 災害가 生하고 그를 從하면 苛疾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得道라 한다. 道라는 것을 聖人は 行하고, 어리석은 자는 몸에 두르고만 있다. 陰陽을 따르면 生하고 그를 逆하면 死하며, 그를 따르면 다스려지고 그를 逆하면 어지러워지니, 順을 反하여 逆하게 되면 이를 內格이라고 한다. 이리하므로 聖人は 이미 생긴 病을 다스리지 않고 아직 病들지 않은 것을 다스리며, 이미 어지러워진 것을 다스리지 않고 아직 어지러워지지 않은 것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⁴⁵⁾고 하여 萬物의 根本인 四時陰陽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得道한 聖人の 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聖人이라면 四時에 맞게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聖인이 적고 평범한 사람이나 위에서 예를 들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四時를 從하기 보다는 不從함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와 같은 四時의 從과 不從을 韓醫學에서는 사람을 진단할 때 病의 可治·易已·易治, 不可治·難易·益甚 등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였다.

『素問·玉機眞藏論』에 “무릇 病을 다스릴 때에는 그 形氣의 色澤과 脈의 盛衰와 病의 新故를 살펴서 그를 다스리되 그 때에 뒤처짐이 없어야 한다. 形과 氣가 相得하면 이르기를 可治라고 하고, 色澤이 浮하면 이르기를 易已라고 하고, 脈이 四時를 따르면 이르기를 可治라고 하고, 脈이 弱하면서 滑하면 이는 胃氣가 있는 것이니 命하기를 易治라고 하며, 때로써 그를 取한다. 形과 氣가 相失하면 이르기를 難治라 하고, 色은 夭한데 潤澤하지 않으면 이르기를 難已라 하고, 脈이 實하면서 堅하면 이르기를 益甚이라 하고, 脈이 四時를 逆하면 不可治가 되니, 반드시 四難을 살펴서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8. “冬日在骨 蟄蟲周密 君子居室”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3.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1. “鼓陽至而絶曰石”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0. “四時者 所以分春夏秋冬之氣所在 以時調之也”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故與萬物沈浮於生長之門 逆其根 則伐其本 壞其眞矣 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 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逆之則災害生 從之則苛疾不起 是謂得道 道者 聖人之行 愚者佩之 從陰陽則生 逆之則死 從之則治 逆之則亂 反順爲逆 是謂內格 是故聖人不治已病 治未病 不治已亂 治未亂 此之謂也”

분명하게 그를 告해야 한다. 이른바 四時를 逆한다는 것은 春에 肺脈을 얻고, 夏에 腎脈을 얻고, 秋에 心脈을 얻고, 冬에 脾脈을 얻는 것인데, 그 至가 모두 懸絶沈瀟한 것도 名하기를 逆四時라고 한다. 臟形이 있지 않고서 春夏에 脈이 沈瀟하고 秋冬에 脈이 浮大한 것을 逆四時라고 名한다.”⁴⁶⁾고 하였고, 『素問·宣明五氣』에 “五邪가 나타나는 바는 春에 秋脈을 얻고, 夏에 冬脈을 얻고, 長夏에 春脈을 얻고, 秋에 夏脈을 얻고, 冬에 長夏脈을 얻는 것이다. 이를 五邪라고 하는데, 모두 함께 死不治라고 命한다.”⁴⁷⁾고 하였으며, 『素問·平人氣象論』에 “脈이 陰陽을 從하면 病이 쉽게 낫지만, 脈이 陰陽을 逆하면 病이 낫기 어렵다. 脈이 四時의 順을 얻으면 病에 다른 어려움이 없다 하고, 脈이 四時를 反하거나 間臟하지 않으면 낫기 어렵다고 한다. … 脈에는 四時를 逆함과 從함이 있는데, 臟形이 있지 않고서 春夏인데 脈이 瘦하거나 秋冬인데 脈이 浮大한 것을 逆四時라고 命한다.”⁴⁸⁾고 하였다. 이로써 病을 다스릴 때에 四時를 따랐는지의 여부는 可治와 不可治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脈에 있는 四時의 逆從을 구분하였을 때에 從하면 病이 쉽게 낫거나 치료할 수 있지만, 逆하면 病이 낫기 어렵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逆四時나 反四時라는 표현이 아니라 勝이라는 단어로 四時에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한 篇도 있는데, 『素問·金匱真言論』에서 “이른바 四時의 勝을 얻었다는 것은 春이 長夏를 勝하고, 長夏가 冬을 勝하고, 冬이 夏를 勝하고, 夏가 秋를 勝하고, 秋가 春을 勝하는 것이니, 이른바 四時가 勝하는 것이다.”⁴⁹⁾고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무엇을 所勝이라고 하는지를 黃帝의 問함에 岐伯이 答하기를, “春이 長夏를 勝하고, 長夏가 冬을 勝하고, 冬이 夏를 勝하고, 夏가 秋를 勝하고, 秋가 春을 勝하는 것으로 이른바 五行의 時가 勝함을 얻어 각각의 氣로써 그 臟을 命한다.”⁵⁰⁾고 하고 같은 篇의 뒷부분에서 “變이 이르면 病이 되는데, 이기는 바이면 微하고 이길 수 없는 바이면 甚한데, 겹쳐서 거듭 邪에 感하면 죽는다. 그러므로 그 時가 아니면 微하고, 그 때에 當하면 甚하다.”⁵¹⁾고 하였다. 「金匱真言論」과 「六節藏象論」의 앞부분에서 말한 勝은 계절의 氣가 勝하는 것이고, 「六節藏象論」의 뒤에서 말한 所不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바로, 자기를 勝하는 것이다. 四時之勝의 관계처럼 사람에게 있어 所不勝의 時에 當하면 病이 甚해지고, 이 때 邪에 거듭 感하면 죽음에도 이르게 됨을 말하였다.

III. 結論

天人相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天地之氣로써 生하고 四時之法으로 成하며, 小宇宙인 人體는 天氣와 交感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陰陽四時의 變에 寒熱溫涼의 盛衰가 다르고 그에 따라 人氣의 所在도 달라지며, 養生法과 鍼을 놓는 것, 그리고 脈이 나타나는 象 등에 차이가 있다.

『脈要精微論』에서는 四時에 따라 陰陽의 升降이 달라지고 그에 應하여 上下하는 脈의 法度を 規矩衡權으로 설명하였다. 規는 원을 그리는 도구인 그림쇠인데, 그림쇠를 조절하여 원의 중심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하고서 원을 그리는 것처럼, 冬에 인체의 깊은 곳에 머무르고 있던 陽氣가 春에 歲의 太過不及과 人的 元氣에 따라 外로 뺏어나가는 象이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5. “凡治病 察其形氣色澤 脈之盛衰 病之新故 乃治之 無後其時 形氣相得 謂之可治 色澤以浮 謂之易已 脈從四時 謂之可治 脈弱以滑 是有胃氣 命曰易治 取之以時 形氣相失 謂之難治 色夭不澤 謂之難已 脈實以堅 謂之益甚 脈逆四時 爲不可治 必察四難而明告之 所謂逆四時者 春得肺脈 夏得腎脈 秋得心脈 冬得脾脈 其至皆懸絶沈瀟者 命曰逆 四時未有藏形 於春夏而脈沈瀟 秋冬而脈浮大 名曰逆四時也”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2. “五邪所見 春得秋脈 夏得冬脈 長夏得春脈 秋得夏脈 冬得長夏脈 … 是謂五邪 皆同命死不治”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6. “脈從陰陽 病易已 脈逆陰陽 病難已 脈得四時之順 曰病无他 脈反四時及不間藏 曰難已 … 脈有逆從四時未有藏形 春夏而脈瘦 秋冬而脈浮大 命曰逆四時也”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所謂得四時之勝者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四時之勝也”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6. “春勝長夏 長夏勝冬 冬勝夏 夏勝秋 秋勝春 所謂得五行時之勝 各以氣命其臟”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6. “變至則病 所勝則微 所不勝則甚 因而重感於邪 則死矣 故非其時則微 當其時則甚也”

바로 規이다. 矩는 方을 그리는 곱자인데, 이는 夏에 陽氣가 盛해지다가 極盛해지고서는 다시 陰氣가 始生하면서 降하는 象이다. 衡은 저울대인데, 한쪽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바로 기울려는 저울대처럼, 夏에 盛滿했다가 다시 하강하려는 陽氣가 금방이라도 내려갈듯 하면서도 아직 내려가지는 않은 채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의 象을 말한다. 權은 저울추이니, 陽氣가 최대로 降하여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고 있는 象이다.

이와 같은 規矩衡權은 직접적인 脈象의 의미라기 보다는 四時에 따라 升降이 달라지는 人氣와 그에 應하는 脈에 대한 기준의 象이며, 「玉機眞藏論」의 弦鈎浮營이나 「平人氣象論」의 弦鈎代毛石과 같은 四時의 脈象들을 포괄하고 설명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規矩衡權으로 사람이 四時陰陽에 적절하게 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診脈에 있어서도 病의 有無와 豫後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사용된다. 四時의 法度에 맞는 脈이 나타나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脈이 보이면 이는 人氣가 陰陽에 應하는 法度가 어그러진 것이므로 病이며, 나타나는 脈에 따라 病의 進退를 알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김인락. 東洋醫學의 人間과 醫道. 대한한의학회지. 1997. 1(1). pp.43-44.
2. 최근조, 강정수. 時間에 따른 人氣의 盛衰에 관한 연구.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1. 10(1). p.13, 16.
3. 이상범, 박영배, 강성길. 四時의 鍼刺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75. 12(1). p.203, 207.
4. 장용우, 임진석. 黃帝內經에 나타난 脈診法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8. 11(2). p.147.

<단행본>

1. 정효구. 한국현대사와 平人의 사상. 서울. 푸른사상사. 2007. pp.22-23.

2. 張介賓. 譯注 類經 第九冊. 서울. 海東醫學社. 2001. pp.53-55, 322-326.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p.195-196.
4.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309-313.
5.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서울. 一中社. 1982. pp.126-128.
6. 章楠. 靈素節注類篇. 서울. 一中社. 1986. pp.168-169.
7. 馬蒔. 新編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14.
8.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0. p.1443, 1854.
9. 成百曉 譯. 懸吐完譯孟子集註.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06. p.284. pp.277-280.
10. 金碩眞. 大山主役講解(上經). 서울. 大有學堂. 1993. p.58.
11.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李允熙 譯註. 參同契 闡幽. 서울. 驪江出版社. p.391.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2, 73, 206, 299.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14, 20, 25, 29, 31, 36, 49, 52, 54, 66, 73, 75, 86, 92, 97, 100, 169, 193, 229, 246, 303. pp.57-58, 213-214.